



보도	2025.2.6.(목) 09:30	배포	2025.2.5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임권순	(02-3145-7580)
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	담당자	팀 장	최지혜	(02-3145-7570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전 무	이창화	(02-2003-9016)
	자본시장 밸류업 TF	담당자	부 장	허 옥	(02-2003-9130)

「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」 개최

I 열린 토론 개요

- '25.2.6.(목) 금융감독원(원장: 이복현), 금융투자협회(협회장: 서유석) 공동으로 학계·연구기관·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·기관 투자자와 함께 「열린 토론」 개최
 - 금번 토론은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,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

「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」 개요

- ☑ 일 시 : '25.2.6.(목) 09:30 ~ 11:00
- ☑ 장 소 :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
- ☑ 참석자 : 학계·연구기관, 금융업계, 투자자 등 패널(9명, 불임) 및 방청객(20여명)

시 간	내 용
09:30 ~ 09:37	【모두 발언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
09:37 ~ 10:55	【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】 - 주제 발표 : ① '25년 한국증시 전망 (유진투자증권) ②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(금융투자협회) - 자유 토론 : 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
10:55 ~ 11:00	【마무리 발언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

II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"양면 전쟁"(Two-Front War)의 위기에 놓여있음
 - 또한,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고,
 - 여기에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,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함을 강조
- 아울러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,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,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 - **(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)** 장기투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
 -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예정
 - **(기업 경영진 의무)** 경영권은 '권리'가 아니라 '의무'이며, 경영진은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
 -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
 - **(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)**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의 추진력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할 시점
-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'실질적인 성과'로 이어가야 함
 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'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'해 나갈 계획

※ <별첨>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구 분		소 속	성명 및 직위
주관기관		금융감독원	이복현 원장 서재완 부원장보
		금융투자협회	서유석 협회장
패 널	투자자 및 금융업계	노무라 금융투자	박세영 전무
		개인투자자	전인구
		NH-아문디자산운용	이진영 본부장
	학계 및 연구기관	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	천준범 부회장
		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	안수현 교수
		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	박훈 교수
		자본시장연구원	남재우 연구위원
		한국금융연구원	박준태 연구위원
	기타	법무법인 광장	김수연 연구위원